

도덕적 국제전문인을 양성하는 “계명대 학교”

신 일 희 | 계명대 총장

• 21세기 뉴리더 배출

계명대의 교육목표는 도덕적 잣대를 갖춘 개방적인 국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도덕성은 21세기 전문인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따라서 계명대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도덕적인 실천인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실천적·윤리적 인간 교육을 바탕으로 한 창학정신인 기독교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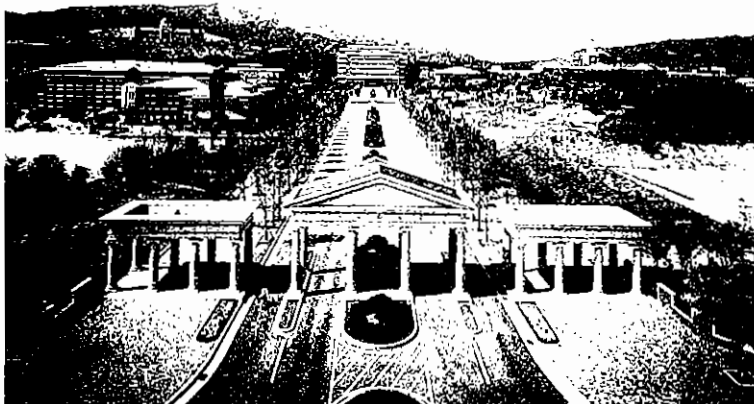
또 계명대는 인문학이나 예술분야의 오랜 전통

을 갖고 있는 대학답게 독창적인 사고와 상상력 등 창의성을 대학 특유의 다양성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열린 사고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에 대한 포용력을 키우는 교육으로서,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여는 교육의 전당으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 국제화 교육의 선두주자

국제화는 21세기 교육 방향의 중심축으로 불릴 만큼 대학교육의 기본 전제로 자리잡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은 세계화의 조류에 맞춰 사회의 고급 인력을 키워내야 하는 현실적인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국제화 교육 체계를 갖춘 대학은 쉽게 찾기 어렵다. 이러한 국내 대학교육의 실정에서 계명대는 특히 눈에 띈다.

오래 전부터 ‘국제화 대학’이란 가치를 내건 계명대는 세계화 교육을 다양한 방면에서 치밀하게 준



▲ 정문에서 본 성서캠퍼스

비해 왔다. 세계화 교육의 선두주자 계명대의 국제화 전략을 알아본다.

103개 해외 자매 대학과 학생·교수 교류
계명대는 최근 노르웨이 베르겐(Bergen) 대학, 일본 칸사이(關西)



▲ 본관 전경

외국어대학 등 2개 대학과 잇따라 교류협정을 맺어 해외 교류대학 및 기관이 22개국 103개교로 늘었다. 전국 최고 수준으로 양적인 면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계명대의 국제 교류는 정평이 나 있다. 이 같은 해외 교류는 하위 수준의 다자간협상이 아닌, 양 대학간의 쌍무협정으로 직접적인 교류가 중심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계명대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학생 교환 프로그램인 ISEP(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 회원 대학으로 가입해서, ISEP 회원 대학까지 포함하면 세계 326개 대학을 자매대학으로 두고 있다.

또 계명대는 미국 150여 개 대학으로 구성된 국제학 관련 대학간 국제협의체인 CCIS(College Consortium of International Studies)가 정한 한국학 지정 대학으로, 세계에 한국학을 알리는 국내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 국제 한국학 연구소인 현지법인 'Academia Koreana'를 설립, 다양한 국제학술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며 영문 한국학 국제학술지인 'Acta Koreana'도 연 2회 발행하고 있어, 한국을 연구하는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계명대를 찾고 있다.

계명대는 미국학, 독일학, 프랑스학, 일본학, 중국학 등 5개 전공의 국제학부를 '79년에 만들어 외국학에 대한 기반을 다져 왔으며, 통번역·통상 전

문인력을 키우는 국제학 대학원도 '95년 개설했다. 또 최근 각종 국제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 센터를 신설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국제화 전략을 짜는 등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2개 과목을 영어로 수업

대학간 국제교류는 호혜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해외의 명문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 선진학문의 기회를 제공하려면 국내 대학도 외국 대학 학생들이 오고 싶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명대에서 매년 해외 대학에 나가는 학생과 교수는 70여 명이며 또 그만큼 외국의 학생과 교수들이 계명대를 찾는다. 이러한 교환 규모는 계명대가 외국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계명대는 한국학 연구의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데다, 교수가 영어로 강의하는 영어 강좌가 122개 과목(전공 41개 과목)에 이른다. 또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 수업을 합하면 원어 수업은 훨씬 늘어난다. 이같은 원어 강의는 외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계명대 학생



▲ 계명대의 원어 강의는 세계화 교육에 큰 몫을 한다.



▲ 영화 '동감' 촬영 장면

들의 세계화 교육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계명-쇼팽음악원

음악 명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계명대는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세계적인 음악교육 기관인 폴란드 국립쇼팽음악원과 함께 '계명-쇼팽음악원'을 '99년 3월에 열었다. 계명-쇼팽음악원 학생은 계명대에서 4학년 1학기(7학기)까지 이수하고 폴란드 쇼팽음악원에서 2년간을 유학해 학사와 석사를 동시에 취득한다. 학부과정에서 11명의 국립쇼팽음악원 교수들이 계명대에서 직접 강의를 하며, 현재 58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영어전용 기숙사(KELI House) 운영

올해부터 계명대는 영어특별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2002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 중 192명을 선발해, 영어전용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영어학숙에서는 원어민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 언어로 영어만 쓰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토플, 토익은 물론 영어문화강좌 등 체계적인 영어교육도 받는다.

• 국가가 키우는 계명대의 특성화 교육

디자인분야-FISEP, 디자인산업진흥센터

국제적인 섬유패션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FISEP(Fashion & International Special Education Program·섬유패션산업특화 국제전문인력양성 국책사업단)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사업단이다. 교육부가 '97년 지방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5년간 70억 원을 지원하는 FISEP은 국제학부, 통상학부, 패션학부, 생활과학부 4개 학부가 공동으로 제 1전공 과정을 갖고 교차이수를 통해 상호협정을 교환하고 있다.

매년 30명씩 FISEP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4년간 전액 장학금과 함께 일정액의 도서비와 해외 어학연수 비용을 전액 지원 받는다. 또 원어민 외국어교육과 국제 매너교육 등 졸업 후 곧바로 국제적인 전문인력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

2001년 5월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센터로 지정한 디자인산업진흥센터는 디자인 관련 첨단 설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년간 3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001년에는 대구광역시와 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사업 규모 39억 원의 섬유패션디자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해 산학연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 계명대 RRC에서 개발한 저공해 자동차

바이오분야-TMR센터

2001년 6월 계명대 전통미생물 자원개발 및 산업화연구센터(TMR·Traditional Microorganism Resources Center)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과학기술부의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선정됐다. 이로써 계명대는 저공해자동차부품센터(1996년 지정)와 함께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를 2개 갖추게 됐다. 이는 곧 계명대의 연구 저력이 돋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TMR센터는 2010년까지 200억 원이 투입되어 기능성 음료, 미생물농약 개발과 암진단 및 유전자 치료 연구 등에 필요한 국내 최고 시험생산 설비와 인력을 갖추는 등 바이오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도시환경분야-저공해 자동차 센터

환경학부(단과대학)를 둔 계명대는 환경과학, 환경계획, 지구환경보전 등 3개의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낙동강환경원 등을 두고 지역의 환경을 연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지역협력연구센터(RRC·Regional Research Center)인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개발센터는 디젤 엔진을 LPG 연료분사 시스템으로 바꾸는 등 수십억 원의 연구비의 지원 아래 저공해 자동차 부품을 개발, 40여 건의 특허 출원과 제품상용화 실적을 거두었다.

• 국내 최고의 교육 환경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계명대 캠퍼스는 전국 최고의 캠퍼스로 꼽힐 정도로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55만여 평의 성서캠퍼스와 3만 5천여 평의 대명캠퍼스 건물은 붉은 벽돌과 담쟁이 넝쿨이 잘 어우러

져 기품있는 오랜 전통의 명문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다. 아름다운 캠퍼스는 이미 '동감', '모래시계' 등 3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의 무대가 될 정도로 이름이 나 있다.

계명대의 아름다운 캠퍼스는 오는 2004년 개교 50주년에 맞춰 더욱 완벽하게 구현된다. 1983년 대명캠퍼스에서 성서캠퍼스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성서캠퍼스 청사진이 현실화돼 19개 학부, 2개 대학 82개 전공과 13개 대학원의 2만 6천여 명 학생의 꿈을 실현하는 캠퍼스 지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2003년이 되면 99칸 한옥의 한학촌, 의과대학, 간호대학, 박물관, 부설유치원 등이 완공



▲ 명교생활관 전경

돼 성서캠퍼스에 제자리를 잡게 된다. 계명대 대명캠퍼스는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섬유패션디자인 창업보육센터 등이 들어서 산학 협력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계명대는 개교 50주년을 기점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전국, 더 나아가 세계의 대학과 함께 당당히 서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또 다른 청사진을 준비중이다.

학생 기숙사인 명교생활관은 2002년 2월 2개 동이 준공돼 2002년부터 7개 동에서 1천5백여 명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02년 말 1개 동을 추가 완공하여, 2003년부터는 2천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